

烏有蘭傳(오유란전)

신○산 풀이

大明順和年間, 東方漢陽地, 有二宰相, 曰金曰李.
俱以簪纓之族, 地醜德齋, 世交殷密.
金相語李相: “吾兩家豚兒, 生年日時, 若合符契, 事不偶耳.
使當同學, 見其成就, 豈非吾儕晚景之樂哉?”
李相曰: “此誠余意.”
乃酒掃一間精舍, 使之同師, 連衾比床, 二生亦相與矣.

명나라 순화¹⁾ 연간에 조선 한양 땅에 두 재상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김씨요, 또 한 사람은 이씨였다. 모두 문벌의 집안으로 지체가 같았고, 덕망도 같아서 대대로 맺어온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

하루는 김재상이 이재상을 보고 말하였다.

“우리 두 집안 아이들의 생년 일시가 부절²⁾을 합한 것과 같으니,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올시다. 마땅히 같이 공부하게 해서 그 성취를 본다면 어찌 우리들의 만년이 즐겁지 않겠소?”

이 재상이 말했다.

“그것은 참으로 나의 뜻이오.”

이에 한 칸 정사³⁾를 청소하고, 한 스승 밑에 배우며 같이 자고 같이 먹게 하니, 두 아들도 또한 어울려 지냈다.

心曰: “男兒功名, 早晚必成. 周召之功, 可期於古周, 管鮑之風, 復吹於今世.

園中之花, 澗畔之松, 設有早晚之差殊, 彼此眷顧, 不相忘也.”

指金石而爲固, 若膠漆而相沕.

日去月諸, 學與年深, 舉子工程, 成已造極矣.

그들은 마음으로 말하였다.

“남아의 공명은 조만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공과 소공의 공적⁴⁾은 옛 주(周) 나라에서 구할 수 있고, 관포지교⁵⁾의 바람은 오늘날 다시 불 것이라. 뜰 가운데의

1) 1457~1487.

2) 돌이나 대나무 따위로 만들어 신표로 삼던 물건.

3) 학문을 가르치려고 지은 집.

4) 주공 단(旦)과 소공 석(奭)은 모두 주 문왕의 아들이며 무왕의 아우들로, 무왕을 도와 은을 멸망시키고 동이의 반란을 정벌하는데 큰 공을 세움.

꽃과 시냇가의 소나무와 같이 설사 빠르고 늦는 차이는 있더라도, 피차가 돌봐주며 서로 잊지 아니할 것이리라.”

두 아들은 금석같이 굳은 우정을 맺고, 아교칠 같은 변함없는 정으로 지냈다.

세월은 흘렀다. 학문은 해와 더불어 깊어졌으며, 아이들은 이미 장성하였고 공부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歲在甲子, 國有大慶. 玉冊已拌, 金榜將開.
 二生携手入場, 研片片槩周旋.
 及夫唱第, 一點龍額, 一嘆山外, 山外者李, 龍額者金.

갑자년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다. 옥책은 이미 나누어졌고⁶⁾, 금방⁷⁾이 장차 열리게 되었다. 김생과 이생은 손을 잡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 실력을 다 기울여 과제를 지어 올렸다.

이윽고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불리는데, 한 사람은 장원급제를 하였고, 한 사람은 낙방을 했는데, 낙방한 사람은 이생이요, 장원급제한 사람은 김생이었다.

金以秀才, 履歷翰玉, 陞資進級, 除得箕伯之日.
 卽邀李生, 語其偕往之意.
 生曰: “君則爲國憂民, 承宣刺史也. 余惟學聖慕賢, 工夫士子也.
 分職殊塗, 操心不同, 此不啻不可. 且箕城 古來, 繁華豪蕩之地, 余所不顧.”
 伯曰: “繁華自繁華, 工夫自工夫, 兄言深固也. 何妨之有? 不記初日之約言乎?”
 乃與之携袖同車, 直赴任所.

김생은 수재로서 벼슬길을 밟아 진급을 거듭하여 기백⁸⁾을 제수받았다. 즉시 이생을 맞아 함께 가자는 뜻을 말하였다.

이생이 대답하였다.

“그대는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근심하고 임금의 뜻을 받아 펴는 감사라. 나는 오직 성인을 배우고 현자를 사모하는 공부하는 선비이네. 맡은 일이 나누어져 있고 갈 길은 다르며 마음 씀이 같지 아니하니, 함께 가는 것은 불가하네. 또 평양은 옛날부터 변화하고도 호탕한 땅이므로 내가 돌아볼 곳이 아닐세.”

감사(김생)가 말하였다.

“변화하는 것은 저절로 변화하는 것이고, 공부는 공부이거늘, 자네의 말은 매우 고루하네. 무슨 방해가 있겠나? 우리 처음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는가?”

5) 중국 춘추 시대의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의 사귀기가 매우 친밀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다정한 교제를 일컫음.

6) 과거 시행령이 떨어짐.

7) 과거 시험장.

8) 기자를 봉한 땅, 평안감사.

하고는, 소매를 잡아 같이 수레를 타고는 바로 임지로 나아갔다.

開坐翌朝, 特命降分付, 別於幽閑處, 灑掃一堂.

備儲五書, 使生靜居, 種種致問, 勉以孜孜之意.

生亦無意繁華之事, 着念於文字上而已.

一朝, 使通引, 傳語於生曰:

“今日, 卽兄及第之初度, 詩人蓼莪之章, 疇能不廢哉?

日暖風和, 故人情緒, 切摯於中.

兄須不遐金玉, 一番疎暢, 未知何如耶.”

감사는 부임한 다음 날 아침, 특명으로 분부를 내려, 깊숙하고 조용한 곳에 있는 별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했다. 오서⁹⁾를 갖추어 쌓아놓게 하고서, 이생을 조용히 거처하며 여러 가지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게 해 주었다.

이생도 변화한 일에는 뜻이 없어 생각은 글자 위에만 붙일 뿐이었다.

하루는 감사가 통인¹⁰⁾을 보내어 이생에게 전하였다.

“오늘은 바로 자네가 처음 이 집에 온 지 일 년 되는 날이니, 시인의 육아지장¹¹⁾을 누구라 버리지 않겠는가?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화창하여 친구에 대한 정이 마음속에 간절하네. 자네는 귀한 몸을 멀리 말고 한 번 찾아와서 성긴 우정을 펴봄이 어떠하겠는가?”

生心雖不愜, 却之無辭.

掇券讀罷, 卽隨通引, 而來宣化高堂, 鋪陳等節, 忽驚於初到之耳目也.

四十二洲官長, 列坐於左右, 七十二名妓女, 侍倍於前後.

琴瑟管絃五音, 繁於房中, 金石匏土八音, 迭於階畔.

杯盤狼藉, 觥籌交錯.

이생은 비록 뜻에 맞지 않았으나,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책을 덮고 바로 통인을 따라 선화당으로 올라가니, 차려진 음식들은 홀연 처음 보는 이생의 이목을 놀라게 하였다.

마흔네 주의 수령들이 좌우로 벌려 앉았고, 일흔두 명의 기녀들이 앞뒤로 모시고 앉아 있었다. 금슬관현¹²⁾으로 다섯 음을 방안에서 연주하고 있으며, 금석포토¹³⁾로

9)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10) 관아의 심부름꾼.

11) 부모가 돌아가신 후 그 은혜를 기리며 효도를 다하지 못했음을 슬퍼하는 마음. 여기에서는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슬픈 마음.

12) 거문고, 비파, 피리, 가야금.

13) 쇠(金), 돌(石), 실(絲), 대(竹), 박(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 등 여덟 가지 악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

팔음을 뜰에서 연주하고 있었다. 술잔과 쟁반은 흩어져 있었고 이리저리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다.

延生定坐, 寒暄才畢, 左右紅粧, 爭進獻酒.

唱歌一闕之除, 生勃然拂袂, 忽起告退曰:

“今日之事, 誠非爲人之道也.”

伯挽袖而笑曰: “兄未嘗讀書之人乎?”

讀書之人, 莫不欲效程伯子, 而亦不聞吾心中無伎之訓也哉? 何如是契然過當?”
屢屢開諭, 終不得挽.

이생을 맞이하여 좌석을 정하고 인사를 겨우 마치고 나니, 좌우에 앉아 있던 기생들이 다투어 이생에게 술잔을 권하였다. 노래 한 곡을 마칠 즈음에 이생이 홀연 일어나 화를 불끈 내며 소매를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 물러갈 것을 고하며 말하기를,

“오늘의 이 잔치는 실로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

하니, 감사가 소매를 붙잡고 웃으며,

“자네는 일찍이 글을 읽은 자가 아니던가? 글 읽는 자라면 정백자¹⁴⁾를 본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랴만, 또한 내 마음속의 좋은 훈계가 들리지 않는가? 어찌 이렇듯이 지나친 행동을 하는가?”

하며, 누누이 타일렀으나, 끝내 말리지 못했다.

是日宴席, 見生之舉措者, 孰不嘖笑其過執也.

宴罷, 伯吩咐於首奴曰: “妓女中通敏可使者, 誰也?”

曰: “蘭也. 時年十九, 可合不詢.”

卽招蘭, 吩咐曰: “汝知別堂李郎住乎?”

曰: “知之.”

曰: “汝能押侍否?”

曰: “非一夕之可能, 願給一月之由則必矣.”

曰: “給由一朔之後, 如或不能則泯死.”

曰: “遲晚, 可也.”

이날 잔치 자리에서 이생의 행동을 보고 누구나 그 지나친 고집에 대하여 찌푸리며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잔치가 과하자 감사는 수노¹⁵⁾에게 분부하였다.

“기녀 가운데서 지혜롭고 쓸만한 자가 누구냐?”

14) 중국 송나라 도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정호(程顥).

15) 노비들의 우두머리.

“유란(오유란)이올시다. 지금 나이 열아홉으로 묻지 않아도 잘할 것입니다.”

감사는 즉시 유란을 불러 분부하였다.

“너는 별당의 이랑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나이다.”

“그러면 네가 이랑을 가까이하여 모실 수 있겠느냐?”

“하루 저녁에는 할 수 없거니와, 한 달 동안의 말미를 주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말미를 주고 나서, 혹 성공하지 못할 때에는 죽을 것이다.”

“늦는다면 그리하소서.”

蘭據吩咐退，解却朱綠，改着素縞。

又使一童女，拾取數匹縷，戴之以小盆，加之而短椎，導前後徑，至別堂前小池邊。

斂容巧坐，開自澣濯焉。

時維丙寅春三月望間也。

유란은 분부를 듣고 물러 나오자, 붉고 푸른 기녀의 옷을 벗어 흰옷으로 갈아입었다. 곧 계집아이에게 여러 필의 베를 가져오라 해서, 작은 동이에 담고 짧은 방망이를 가지고 앞뒤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별당 앞에 있는 작은 연못 가로 나아갔다.

그리고 얼굴을 가다듬고 맵시 있게 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병인년 춘삼월 보름께였다.

生於別堂，閱月獨處，當此花辰，春情不無，詩吟賦詠，緩步於軒階之上。

忽於風便之中，浣紗聲高低，自牛鳴地上來。

疑其前所不聞，矯首四望。風景正新，物色可愛。

銀杏樹下，石假山邊，數尺銀鱗，踴躍於菱茨之上，一輪金光，滉漾於水波之中。

夫何一美人，依然若西王母之降瑤池，恍然若楊太眞之臨太液。

花爲容而玉爲貌，一朵金蓮，含露纔綻也。

眉其曲而頰其豐，孤輪素月，容光必照矣。

이생은 별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는데, 꽃피는 시절을 맞게 되자 봄 흥취가 없을 수 없어 시를 읊으며 섬돌 위를 거닐었다. 이때 홀연 바람 소리에 묻혀 빨래하는 소리가 높았다 낮았다 하며 우명지¹⁶⁾로부터 들려왔다.

전에 들어 보지 못한 소리인지라 의심이 나서 고개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풍경은 바야흐로 새롭고 물색은 가히 사랑스러워졌다. 은행나무 밑 석가산 옆에, 큰 은빛 잉어가 마름꽃 위에서 뛰놀고 있었고, 둥근 금빛의 달이 물결 위에서 등실거리고 있었다.

16)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보통 한 나라가 창업된 곳을 뜻함.

그 가운데 어떤 한 미인이 앉아 있었는데, 얼핏 보니, 서왕모가 요지¹⁷⁾에 내려 온 듯하였고, 말로만 들었던 태액의 양태진¹⁸⁾가 되살아온 것 같았다. 꽃은 얼굴이 되고 옥은 모습이 되어 한 송이 금빛 연꽃이 이슬을 머금고 바야흐로 터지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눈썹은 꼬부라지고 뺨은 부풀어져 외롭게 둥근 흰 달과 같은데, 얼굴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다.

生一顧眄來，雖以士子之守貞，暗嘆美色之傾國。
流睨送情，望望看看。
少焉之頃，美人覺其窺瞰，翻身起去，步履端雅。
宛如西施之步越庭，真個是絕代佳人也。

이생은 한 번 돌아보고는, 비록 여인을 멀리하는 선비의 아들임에도, 경국의 미색¹⁹⁾에 탄복하였다. 눈길을 흘리며 정을 보내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유란은 누가 엿보고 있음을 깨닫고서 몸을 번득여 일어나 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단정하고 우아하였다. 흡사 서시²⁰⁾가 월나라 궁정 뜰을 걷는 것과 같았는데, 그 모습을 정말로 절대가인이었다.

自是之後，或間五日，或間三日，每以前樣，來坐故處。
乍顧乍覘，以術其巧。
於戲怪哉，生之見女，而放蕩曠工之心。
一見加一層，二見加二層，至於四見五見，一心所在。
五內自解，工不自勤，食不自甘。
掩卷獨坐。憮然長嘆曰：
“人於世間，生且其何，而其樂何哉。”

그 후에도 혹은 오 일을 사이 두고, 혹은 삼 일을 사이 두고, 유란은 언제나 전과 같은 모습을 하고, 그곳에 가서 앉아 있었다. 돌아보기도 하고 엿보기도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듯이 하고 있었다.

재미있고도 기이하였으니, 이생이 유란을 한 번 보고 난 후로 마음이 방탕하여졌다.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 세 번 보고 싶고, 네 번 다섯 번 봄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마음을 그 미인에게만 두었다.

다섯 번 보니, 마음이 풀어져서 힘써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음식을 단맛을 알지 못했다.

17) '서왕모'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신녀(神女)로, 불사약을 가진 선녀라고 함. '요지'는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못으로 신선이 살았다고 하며, 주나라 목왕이 서왕모를 만난 곳이라고 함.

18) '태액'은 당나라 수도인 장안의 궁전에 있던 연못, '양태진'은 당나라 때의 양귀비.

19) 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어지러워도 모를 만한 뛰어난 미인.

20) 중국 춘추시대 때 월(越)나라 출신의 미녀.

책을 덮고 홀로 앉아 길게 탄식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얼마나 되며, 그 즐거움은 또한 얼마인가?”
 하였다.

自是, 計日待女, 女故斬來.
 一日三秋, 常心憧憧.
 顧瞻池邊, 堆磯冷落, 長倚垣頭, 人影幽閑.
 噫! 人情之芴溺也.
 以女之不來, 纏頭冒衾, 穀水不下者, 數日于茲矣.

이로부터 이생은 날짜를 헤아리며 여인을 기다렸지만, 유란은 일부러 가지를 앉았다. 하루가 삼추와 같아 항상 마음이 불안하였다.

연못가를 살펴보면 언덕은 고요하고, 길게 뻗어 있는 담장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아, 인정의 황홀함에 빠졌음이라.

여인이 오지 않으므로 인하여 머리를 싸매고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으니, 곡기와 물이 목으로 내려가지 못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다.

一日斜陽, 忽然浣聲, 隱隱於枕邊.
 生一喜一忙, 強病起身, 跣跣半倒, 履及於中門之外, 矯首顧矚.
 所懷伊人, 宛在于池, 手持短椎, 目送秋波.
 生久待之, 餘心忙意, 促足將進而趑趄.
 口將言而囁喘, 進止數次, 不顧體面, 步如猛虎出林之勢, 接如蒼鷹撲雉之樣.

하루는 해가 지자마자 빨래 소리가 은은히 베갯머리에 들려왔다.

이생은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마음이 급해져서,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맨 발로 허둥지둥 중문 밖에 나가 머리를 들어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여인이 은연히 못가에서 손에 방망이를 쥐고, 눈으로 추파를 보내고 있었다.

이생은 기다린 지 오래인지라, 남은 마음을 다해 바쁜 듯이 발을 재촉하고 나아갔지만 머뭇거렸다. 말을 하고자 하다가도 말을 멈추기를 여러 번 하다가, 결국 체면을 불구하고 맹호가 수풀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이 걸어가서, 푸른 매가 꿩을 차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다가섰다.

美人半驚半訝, 若癡若愧, 拂身翻然,
 櫻脣半開曰: “男女有別, 此何事也, 白晝大道, 是何樣也?”
 生掀髯忻忻曰: “姓甚名誰, 誰家女子, 何處居住.”

美人半含嬌態, 半含羞容, 低眉而答曰:

“少女本是良家女. 早失怙恃, 長於外姪四寸家.

年才及笄, 嫁得西村張四郎, 命道窮迫, 纔未幾月, 旋即喪夫.

非不三從之禮也. 而一從處的來外從家, 伴竹友松, 只慕貞心, 于今三載.

賤年十九, 姓烏有蘭名也. 未知尊君, 何爲而問歟?”

유란은 반은 놀라고 반은 의아하여 어리둥절한 척하면서 부끄러운 듯이 몸을 일으켰다. 앵두 같은 입술을 반쯤 열고 말하기를,

“남녀가 유별한데 이 무슨 일이오며, 대낮에 대로에서 이 무슨 모습이니까?”

하니, 이생은 턱을 어루만지며 기꺼운 듯이 말하기를,

“그대의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누구시며, 뉘 집 따님이시고 어느 곳에 사시오?”

유란은 반은 아리따운 태도를 머금고, 반은 부끄러운 입술을 다물고 눈썹을 나직이 하고 대답했다.

“소녀는 본시 양가의 딸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외사촌댁에서 자라났지요. 겨우 비녀 찌를 나이에 이르러서, 서촌 장사랑한테로 시집갔사오나 팔자가 궁박하여 시집간 지 몇 달도 못 되어 남편을 잃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삼중²¹⁾의 예를 좇을 길은 없었지요. 다시 외사촌댁으로 와서 대나무를 짝하고 소나무를 벗 삼으면서, 오직 정절만을 생각하고 지내온 지 이제 삼 년입니다.

제 나이는 열아홉이옵고, 성은 오이며 유란이라고 부릅니다. 존군²²⁾을 알지 못하오니, 존군은 어찌하여 물으시는지요?”

生聞知其寡居守節者, 尤不勝技痒之心曰:

“余是京城之人, 髓來巡相, 近作此別堂主人李郎也.

願娘子, 聽我而深思之. 娘子之來此凡幾, 而今日之來, 何其遲也?

娘子之知我, 惟茲一場, 我之知娘子, 今幾一月.

飲恨成恙, 伊誰之故? 不必須碎, 第一言, 肯听否?”

이생은 과부가 되어 수절하고 있는 여자임을 알고서는 더욱 들뜨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말했다.

“나는 본시 서울 사람으로서 감사를 따라왔다가, 요사이는 이 별당의 주인이 된 이랑이라 하오. 남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니, 듣고 내 청을 마음 깊이 생각해 주기 바라오.

남자가 늘 이 못가에 오다가 오늘에야 다시 왔으나, 어찌 늦으셨소? 남자께서는

21)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르는 도리.

22) 다른 남자를 높여 부르는 호칭.

나를 알기는 오늘이 처음이나, 내가 낭자를 보기는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었소. 원한을 머금고 병이 들었으니 이는 누구의 탓이겠소? 내 이제 한마디로 청할 터인즉, 승낙 여부를 말씀해 주기 바라오.”

曰: “古語云 ‘一言興戎 一言出好’, 言不可不慎, 而聽之者, 亦不可不慎也.

可聽則聽, 不可聽則不聽. 聽不聽, 在我, 願君第言之.”

生撫掌喟然曰: “我亦青春, 娘亦青春. 以青春待青春之道, 何如?

而且凡人命至重, 望須爲我而憐之.”

유란이 답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말 한마디로 싸움을 일으키고, 한 마디로 화평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말을 삼가지 않을 수 없으며, 듣는 사람도 또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히 들을 만하면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다면 들을 수 없으니, 듣고 아니 듣고는 제게 있사오니 존군은 말씀해 보소서.”

하니, 이생이 손바닥을 비비면서 한숨을 크게 쉬고 말하기를,

“나는 청춘이요 낭자도 또한 청춘이외다. 청춘으로서 청춘을 사모하는 것이 청춘의 도리가 아니겠소? 그러하니 인명의 지중함을 알 터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나를 가련히 여겨 주시오.”

하였다.

娘子, 乍顧微啞曰:

“人命, 重則重矣, 向少女, 不當之教也.

一介女兒, 何敢關於貴命之重不重歟? 如是云道, 心甚惶感.

以微賤之質, 雖磨頂放踵, 何足慳也?

然而抑有情勢, 未得奉副, 君自愛貴體而保重焉.”

曰: “情勢何如?”

曰: “君京華貴族, 一時豪情也, 少女以遐方微賤.

百年盟心也, 一夕風吹花翻之後, 半生金渝玉染之恥, 言之可陋, 悔之何及?

樂昌之鏡, 不復明矣, 桑中之詩, 不足講矣.”

낭자가 잠깐 돌아보고 미소지으며 말하기를,

“인명이 소중한다 하고 소녀에게 가르치심을 불가하나이다. 일개 여자이지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마음으로 황공하여 아뢰나이다.

미천한 몸이 정절을 고집하여 만족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정이 있어 존군을 받들 어 맞을 수 없으니, 부디 마음을 돌리시고 귀하신 몸을 보증하옵소서.”

이생이 묻기를,

“그 사정이 무엇이오?”

하니, 유란이 답하기를,

“존군은 서울의 귀족이요, 일시의 호걸이웁고 소녀는 지방의 미천한 여자입니다. 백 년의 해로를 마음에 맹세했다가, 하루 저녁에 바람이 불어 꽃이 시들어진 후면 반생 동안의 깨끗한 몸이 더러워지고, 흰 옥이 물들어 버린 수치를 말하기조차 추라고, 뉘우친들 어찌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이 다시는 밝아지지 않을 것이며, 뽕밭에서의 시²³⁾를 마음대로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生笑曰：“是何言也？金石可期，日月在彼。娘既烈心，我亦志士。

兩人心事，兩人相知，一心相盟之後，吾志不可奪，娘心尤可固。

生當同室，死當同壤。言之長也，日亦暮矣。”

仍携手前導，美人似甚不肯，而實有意也。

同入別堂，夜深就衾，孔雀比於赤霄，鴛鴦遊於綠水。

이생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 금석같이 기약할 수 있으며, 일월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남자께서는 이미 정절의 마음이 있고, 나 또한 뜻있는 선비외다.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우리 두 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서로 맹세한 후면 나의 뜻을 앗을 수 없을 것이요 남자의 마음도 또한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살아 같이 침실에 들 것이고, 죽어 같이 무덤에 들 것이외다. 말이 길어졌고 해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고는, 손목을 잡고 이끄니, 유란은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싫은 빛은 없었다. 함께 별당으로 들어가서 밤이 이숙한 다음 잠자리에 드니, 공작이 붉은 하늘에서 날고, 원앙이 푸른 물에서 노는 것과 같았다.

是後，娘子每暗從而來，暗從而去，似或恐外間人知之。

生既醉其妍容，又奇其敏捷，自以爲得新情未恰。

奇哉！蘭之善善誘人也！

伯探知其前後動靜，密下吩咐，擇使善步者，奉一書。

而去向京城，止於某處，如是如是。

又裁一札，授一奴曰：“明日某時，如是如是。”

이후로 유란은 날마다 어두지면 왔다가, 어둠을 따라 돌아가니, 혹 바깥사람이 알까 봐 두려워하는 것과 같았다. 이생은 이미 그 아리따운 얼굴에 취하였고, 또 그 민첩한 행동을 기특히 여겨 스스로는 새로운 정이 미흡하다고 여겼다.

신기하구나. 유란이 사근사근하게 사람을 유혹함이어!

23) 남녀 간의 은밀한 사랑.

감사는 그 전후의 동정을 탐지하고, 비밀히 분부하여 걸음을 잘 걷는 자를 골라서 편지 한 장을 주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모처에 머물렀다가 여차여차 하라고 하였다.

또 편지 한 장을 써서는 노복에게 주며 이르기를,
“내일 모시에 여차여차하라.”
고 했다.

翌朝, 使一童傳喝於別堂曰:

“近日體宇, 何如? 工做益勤否? 春鳥戀南, 秋馬悲北, 旅懷鬱抑, 彼此一般.

陳蕃之榻, 縣有日矣, 安道之訪, 肯無意歟? 暫屈賁趾. 毋負故人之望焉.”

生既非前日之生也.

日氣和暢, 豪興猶餘. 要其一番盞簪, 以攄逾月阻懷.

卽投宣化堂, 相揖禮畢, 伯慰之曰:

“兄文字上過勞耶? 食飲間不甘耶? 近者, 玉宇, 何其瘦減?”

曰: “爲客者, 自然多廬而然.”

이튿날 아침, 감사는 동자를 시켜 별당에 가서 이생에게 전하였다.

“요사이 몸이 어떠신가? 공부에 더욱 힘쓰고 있는가? 봄철의 새는 남쪽을 그리워하고, 가을 말은 북쪽을 싫어하는데, 회포가 울적함은 피차가 일반이라. 진번이 의자를 내어주었던 것²⁴⁾은, 편안한 길로 이끌려 했던 것이니, 어찌 의도가 없었겠는가? 잠시 공부를 멈추고 옛 친구와 마주하는 것을 저버리지 말게나.”

이생은 이미 전일의 이생이 아니었다.

날씨가 화창하고 호탕한 흥취가 넘쳤다. 한 번 친구끼리 서로 만나 달이 넘도록 막힌 정회를 펴 보리라 마음먹고는, 즉시 선화당으로 가서 서로 인사를 나누니, 감사는 이생을 위로하며 말했다.

“자네 공부하기에 과로하였던가? 먹는 것이 달지 아니하였던가? 요사이 얼굴이 어찌 그리 수척해졌는가?”

이생이 답하기를,

“객이 된 사람으로서 자연 생각이 많아 그러하겠지.”

하였다.

少頃, 進殮行酒. 忽聞三門外, 叩楹聲喧鬧.

命詢其故, 乃一蒼頭, 自京來急報也.

卽令招致, 俯伏上一封書, 而皮式曰李某.

24) 현자를 특별히 예우하는 일. 후한(後漢) 시절 남창 태수 진번(陳蕃)이, 별로 손님을 접대하지 않다가도 그 고을에서 가난하게 지내는 서치(徐穉)라는 선비만 오면 특별히 자리를 내려 깔아 주고 그가 가면 즉시 말아서 다시 제자리에다 매달았다고 한 고사.

旅中忙手開見, 則李相患候, 朝夕時急之報也. 生顏忽變色, 罔知攸措.

伯爲之戚戚然曰: “郁年疆體, 何崇之由?”

急急使裨幕, 善馬舉行. 行具備畢.

令生上馬曰: “善爲保護.”

머지않아 밥과 술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홀연 삼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왔다.

감사가 그 까닭을 물어보라 하니, 한 노복이 서울에서 급보를 가지고 왔다고 했다. 즉시 불러들이게 하니 엎드려서 봉서를 올리고 자신을 이모라고 하였다.

이생이 손님들 사이에서 바쁜 손으로 열어본즉, 이재상(이생의 아버지)의 환후가 조석으로 급하다는 사연이었다. 이생의 안색이 별안간 변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감사는 슬픈 듯이 위로의 말을 했다.

“연세도 젊으시고 건강하시운데, 어찌 그리되셨을까?”

그리고는, 급히 노복으로 하여금 좋은 말을 골라 떠날 준비를 해 주었다. 행장이 갖추어지자 감사는 이생을 말에 오르라 하고는 말했다.

“부디 몸조심하게.”

生躑躅繼繼, 若將言而不忍.

似有意而不吐, 胸臆難禁, 涕流自沾.

實爲娘子之無一言相贈, 而見之者, 以爲人子情禮, 似當然矣.

征驂加鞭, 渡湏以來, 萬水千山, 杳然而助愁, 長亭短亭, 幽遠而添悲.

餅麈酒肆, 非無多矣, 而食不自甘.

路柳墻花, 非不過矣, 而心無自慰. 轉轉行路, 晝夜勞止.

이생은 주저하고 떠나기 싫어하는 듯하며 어떤 말을 하려는 듯하다가도 차마 하지 못했다. 뜻이 있는 것 같았으나 말을 하지 않고 가슴속의 생각을 금할 수 없어 눈물을 떨어뜨렸다.

실은 유란을 위하여 작별의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었으나, 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자식된 도리로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말을 몰아 채찍을 두르며 패수²⁵⁾를 건너서면서부터 만수와 천산은 아득하여 수심을 돕고, 장정과 단정²⁶⁾은 그윽하고 멀어서 슬픔을 더하게 했다. 술집들에 마음이 없지 아니하였지만, 먹어도 스스로 단 줄을 몰랐다.

노류장화²⁷⁾를 지나치고 싶지 아니함이 없었던만, 스스로 위로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이리저리 옮겨 가는 길에 밤낮으로 걷다가 피로하면 쉬고 하였다.

25) 대동강.

26) ‘장정’은 10리에 하나씩, ‘단정’은 5리에 하나씩 마련되어 있던 역참.

27)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창녀나 기생을 뜻함.

一宿而過鳳岡, 信宿而過松京, 三宿而抵梁鐵坪, 山川依舊, 物色有殊.

日已斜而心如怒矣.

何一健奴, 如箭如飛, 向前而來, 拜於路左曰:

“行次, 輦輶於何處, 而將向誰某宅耶?”

下輩疑其有事, 躑躅而答曰:

“自箕營而向李相宅, 何爲問也?”

奴跪上一書. 生於馬上, 卽卽開坼, 乃是家信.

而親癢快臻, 勿芽之慶, 且以拘忌, 不須入家, 自外反程之意, 親教截嚴.

하룻밤 자고는 봉강을 지나고, 이틀 밤에 자고는 개성을 지났으며. 사흘 밤에 자고는 양철평에 다다르니, 산천은 예와 같았으며 물색도 다름이 없었다. 해는 이미 기울어졌는데, 마음은 조마조마하였다.

이때 어떤 건강한 노복이 화살과 같이 나는 듯이 앞을 향하여 와서는 길 왼쪽에서 절을 하며 물었다.

“행차²⁸⁾는 어느 곳에서 출발하였으며 장차 누구의 댁으로 가십니까?”

이생의 하인배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의심하고 주저하면서 대답했다.

“평양 감영으로부터 이재상 댁을 향하여 가거니와 어찌하여 묻습니까?”

이에 그 노복은 꿇어앉아 편지 한 장을 올렸다. 이생은 말 위에서 뜯어 보니 곧 본가에서 온 편지였다.

부친의 병환이 완쾌하여 뜻하지 않았던 경사가 생겼으나, 꺼리는 일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바깥에서 도로 돌아가라는 사연인데, 그 가르침이 매우 엄하였다.

生既聞喜報, 實爲萬幸, 而又此反程之意, 尤啻萬萬奇會.

以此書意, 頒示下輩 卽令回馬. 欣欣然吩咐於御者曰:

“走馬加鞭, 另念疾行.”

御者, 頗想微意, 故善導馬, 不進而殿.

生怪其蹇屯, 發傳遞代, 恐喝無已. 欲速未由.

留連路上, 虛費多日.

躡一旬之後, 纔渡永濟橋, 漸進長林, 風景如昨, 情思改新.

이생은 이미 기쁜 소식을 듣자 실로 다행이라 여기고, 또 되돌아가라는 가르침은 더욱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였다. 편지의 뜻을 하인배들에게 알리고는 즉시 말을 돌리라고 명령하였다. 이생은 즐거운 듯이 마부에게 분부하기를,

“채찍을 휘둘러 말을 달리되, 다른 생각은 말고 빨리 가기만을 생각하라.”

고 하니, 마부는 곧 채찍을 휘둘러 말을 재촉하는 척하였지만, 오히려 앞으로 나

28) 웃어른이 길 가는 것을 높여 이르는 말.

아가지는 않았다.

이생은 말이 잘 달리지 않음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마부를 바꾸라고 호령하면서 몰아치기를 마지 않았다. 빨리 가고자 하나 방법이 없었다.

길 위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여러 날을 헛되이 보냈다. 일순²⁹⁾이 지난 후에야 겨우 영제교를 건넜는데, 긴 숲속으로 차차 들어가니 풍경은 어제와 같았는데, 생각은 새로웠다.

嗚呼怪哉!

林下路左, 有一新墳, 兀兀成邱, 行路指點.

生訝其昨無而今有, 止馬向御者語曰:

“朝露易晞, 人事區測. 何許人之奄忽, 而瘞此大路之傍.”

適有二三樵童, 放歌而過, 招之而諮曰:

“在彼新墳, 爾或記之歟?”

童輩, 搔首回面, 良久而答曰:

“事之可慘, 言之可哀.”

初不肯道, 往復數三, 乃曰:

오호라, 괴이하다.

수풀의 아랫길 왼쪽으로 한 새로운 무덤이 우뚝한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길에서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곳이었다. 이생은 그 어제 없던 것이 오늘 있음을 괴이하게 여겨 말을 멈추고는 마부를 보고 말했다.

“아침의 이슬은 마르기 쉽고 사람의 일은 헤아릴 수 없도다. 어떠한 사람이 별안간 죽어서 이 큰길 옆에다 묻었을까?”

때마침 이삼 명의 어린 나무꾼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자, 이생은 이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저기 있는 새 무덤을 너희들이 혹 기억하고 있느냐?”

나무꾼들은 머리를 굽으며 얼굴을 돌리고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일인즉 비참하고, 말할 것 같으면 슬픈 사연이나이다.”

하며 처음에는 말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지만, 여러 번 재촉하자 마지 못하는 듯이 말했다.

“此城中, 有天下第一守節烈女. 三歲寡居, 百年貞心.

新使道莅榮之後, 衙中客, 天下無道胡來之子李哥者.

敢懷賊人之心, 陰售如獸之行.

初其親也, 誘之以百年之約, 後其去也. 慳之以半辭之贈.

是可人也, 孰不可人也?

29) 열흘.

以是貞婦，憾一時之情。抱半生之冤，飲恨辟穀，日減時盡，百藥無效。

一命有殞 遺言曰：‘誘我者，李郎也，病我者，李郎。

然，我生既爲李氏之人，沒亦爲李氏之魂。

李氏，京華巨族，早宴間，必也登龍，除官過此。

窆我於此，李氏郎，一顧荒墳，豈非榮於泉下孤魂哉？’

以此之意，昨指血書，留在於世。隣里，爲之憐哀，窆於茲，所以副於願也。

行次，何爲而顧問耶？”

“이 성중에 천하에서 제일가는 수절하고 있는 열녀가 있었습니다. 삼 년을 과부가 되어 살았으나 곧은 마음은 백 년이 하루 같았답니다. 그러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 후 별당에서 거처하고 있는 객이 있었는데, 천하의 무도하고 호래자식³⁰⁾인 이 가란 자였습니다. 이 자가 감히 도적놈의 마음을 품고 가만히 행실을 팔기를 짐승의 행동처럼 하였습시다.

처음 가까이하려 할 때는 백년가약으로서 유혹하고는, 그 뒤 헤어질 때는 일언반구의 말조차 아끼고 나눔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인들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정절을 지키던 과부는 시름에 빠졌습니다. 반평생의 원한을 품고 식음을 물리치니 날로 쇠하고 시시로 말라가서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죽음에 임하여 유언하기를, ‘나를 유혹한 사람도 이랑이웁고, 나를 병들게 한 사람도 이랑이웁니다. 그러하오나 나는 살아서 이미 이씨의 사람이 되었거니와 죽어도 또한 이씨의 혼이 될 것입니다. 이씨는 서울의 거족으로 조만간에 반드시 등용될 것이며, 벼슬을 제수받아 여기를 지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여기에다 묻어 두고서, 이랑으로 하여금 거친 무덤을 한 번이라도 돌보게 해 준다면 어찌 황천³¹⁾에서도 외로운 넋이 영광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며, 그 뜻을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 써 세상에 남겨 놓았었지요. 이웃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여기에다 묻고 그 소원을 풀어 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차는 어찌하여 물어보십니까?”

生元來有情之人也。精魄遍散，心腸摧裂。

自不禁悲，殆若狂醉之樣。

下馬入店，即使一奴入城，買酒果而來。

述一文然後，身投窆所，洒酒焚紙而侑之。

其文曰：

이생은 원래 유정한 사람이라. 정신을 잃고 마음과 창자가 끊어지고 찢어지는 것과 같았다. 스스로 슬픔을 금하지 못하고 거의 미친 사람과 같았고 취한 사람의 모

30)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놈

31) 저승.

양이었다.

이생은 말에서 내려 상점으로 들어가, 즉시 한 노복에게 성안으로 들어가서 술과 과일을 사 오게 했다. 그리고 제문을 한 장 지은 후에, 제 몸을 무덤에 던지고 엄숙히 종이를 불사르고 술을 뿌리면서 권하였다.

그 제문은 이러하였다.

“維世次, 丙寅四月乙丑朔三十日甲午, 漢陽情人李郎,
謹具菲薄之需, 兼賚數行之誅, 含恨告訣于箕城節婦 故烏有娘子靈魄之前日.
嗚呼哀哉! 嗚呼痛哉!
夫唱婦和, 縱勤百年之約, 父生母育, 難負罔極之恩.
際人倫之纔定, 奈親癘之急報?
西日將頹, 惟念事親之日少, 東床宿約, 豈料斷絃之時迫?
言欲贈而不贈, 勢所然而使.
然中路反旋, 既鞫喜於萱幃, 長林渡橋後, 有望於草堂.
天理難諶, 人事多舛. 花忽落於庭前, 玉已碎於房中.
佳期易阻, 傷青鸞之獨飛, 孤魂含冤, 惜丹鳳之失音.
夜月杜鵑之啼, 春風胡蝶之夢, 千劫已空, 一遊難再.
自憐賦命之屯, 不恨尋春之晚. 腸難斷而情難斷.
生已終而沒亦從. 娘子平生, 凡流絕殊, 如有知於九原, 願復賜於一見.
憾趙郎之至情, 續愛娘之前緣.
文不盡言, 言不盡意. 嗚呼哀哉. 尚饗.”

‘유세차³²⁾ 병인 사월 을축 삭 삼십 일 갑오시에 한양의 정인³³⁾ 이랑은 변변치 못한 술과 찬을 삼가 차려 놓고, 두어 줄의 제문을 지어, 한을 머금고 평양 땅의 절개 높은 부인인 고 오유란 낭자 영혼 앞에 아뢰나이다.

오호라, 슬프고도 원통합니다.

부창부화³⁴⁾는 백 년의 가약을 지켜나가기 위함이요, 부생모욕은 저버리기 어려운 망극한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연이 겨우 정해지려는데, 부모님의 급보를 어찌하리까?

서산의 해가 기울어지려고 함에 있어서 오직 아버이를 섬길 날이 적음을 생각하였을 뿐, 동상의 가약³⁵⁾을 맺음에 있어, 거문고 줄의 끊어짐³⁶⁾이 그렇게 빨리 닳쳐 오리라는 것을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작별의 말을 전하려 하다가 전하지 못하였음은 사세가 그렇게 되어서 그러하였

32) 이해의 차례는’의 뜻으로, 제문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33)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34)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화답함. 부부간에 정이 두터움을 뜻함.

35) 새 인연을 맺음.

36) 부부 간 또는 남녀 간의 이별.

습니다. 그러하오나 길 가운데서 뒤돌아보니, 즐거움을 화려한 휘장 속에다 두었으며, 긴 숲을 지나 다리를 건넌 후로는 희망을 별당에다 두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하늘의 이치는 믿기 어렵고 사람의 일은 어그러짐이 많은지요? 꽃은 갑자기 뜰 앞에 떨어졌고, 옥은 이미 방 안에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좋은 시절이 막혔으니, 푸른 난새³⁷⁾는 홀로 날아감을 상심하였고, 외로운 혼이 원한을 품게 되었으며, 단봉³⁸⁾이 울음을 잃게 되었으니 애석히 여길 뿐입니다.

달밤에 두견의 울음과, 봄바람에 나비가 꾸는 꿈은 천 겁³⁹⁾이 지나도록 이미 헛되고 말았으며 다시는 같이 만나 놀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봄이 늦게 찾아온 것을 하나지 않습니다. 창자는 비록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정은 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살아서 이미 날 따랐으니 죽어서도 또한 나를 따르겠지요? 남자의 평생에 있어서 모든 범절이 남과 아주 달랐으니, 만일 저승에서 나의 뜻을 알아줌이 있다면 돌보시어 황천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조랑의 지극한 정에 감동하여 애랑의 옛 인연⁴⁰⁾을 잊고자 합니다.

글은 말을 다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할 수 없사오니, 오호 슬플지어다. 상향⁴¹⁾.'

每讀一句, 吞聲於悵.

告訖, 扣墳放哭, 氣塞者三.

奴爲之悶然, 以手扶起曰:

“事之已矣. 徒增傷感, 自重尊體, 少加寬抑焉.”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리를 삼키면서 흐느꼈다. 고하기를 마침에 무덤을 치며 소리를 내어 크게 우니, 숨이 세 번이나 막히었다.

노복은 안타까이 여겨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면서 말했다.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갓 상심만 더할 뿐이오니 귀한 몸을 조심하옵시고 마음을 진정하십시오.”

生飲泣哽咽曰:

“爾安知之哉? 吾於此人, 雖無侶皮之聘, 曾有結繩之約.

由我而病, 病不遺藥, 由我而殞, 殞不臨訣, 豈不冤哉, 豈不悲哉?

哭不爲彼而我爲私, 私不在我而在彼之情, 情私交切, 孰不如此?

37)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닭과 비슷하며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고, 소리는 오음(五音)과 같다고 함.

38) 목과 날개가 붉은 봉황.

39) 천지가 한 번 개벽한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

40) '조랑', '애랑' 의미 미상.

41) '신명께서 제물을 받으소서'라는 뜻으로, 제례 축문의 끝에 쓰는 말.

非我而使汝當之, 則能獨不然哉?
仍舉袖拭淚, 取水洗面, 扶倚上馬, 轉投宣化堂.

이생은 흐느껴 울면서 목선 소리로 말했다.

“너야 어찌 알겠느냐? 내 이 사람에 있어서 비록 육례는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찍 백년해로의 약속은 있었느니라. 나로 인하여 병이 들었어도, 약 한 첩 보내지 못하였고, 나로 인하여 죽었어도 장례에 참례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며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곡은 저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함이니라. 나를 위함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정에 있나니, 저에 대한 정과 나를 위함이 서로 얽히었으니, 누군들 이와 같지 않겠느냐? 내가 아니라 네가 당했다고 하면, 어찌 능히 홀로 그렇지 아니하겠는가?”

하고는 소매를 들어 눈물을 닦고 물을 떠서 얼굴을 씻고는 마부에 기대어 말에 올라 선화당으로 돌아갔다.

伯忙出接迎, 愕然爲問曰: “春府慎節若何, 而往反如是速也?”
生袖示家書曰: “親候快蘇, 教意如此, 故不得而回程.”
曰: “自兄登塗, 樂宵憧憧, 此則實所願聞, 萬幸萬幸. 兄之神容瘦慙, 何其甚也?”
曰: “急報以來, 多日在道, 自然食不自甘, 寢不自安而然也.”
曰: “此日時厄會, 勿復深慮, 益勤工做, 以速榮親.”
仍令進酒.

감사는 마뻐 나와 맞이하면서, 놀란 듯이 이생을 보고 물었다.

“춘부장의 병환은 어떠하오며 갔다가 돌아오기가 어찌 이같이 빠른가?”

이생은 소매 속에서 서신을 내어 보이며 말했다.

“병환은 완쾌하셨다고 하고, 이처럼 이르시기에 마지못하여 돌아왔네.”

“형이 길을 떠난 후로부터 즐거운 밤이 불안했는데, 이는 실로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한 바 있었으니 천만다행일세. 그런데 형의 얼굴이 어찌 그리 수척한가?”

“급보가 온 이래로 여러 날을 길에 있었기에, 자연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잠을 자도 편치를 못하여 그러하겠지.”

“그것은 한때의 재앙이었으려니, 다시는 깊이 근심하지 말고 공부에 더욱 힘을 써서 속히 아버이를 영화롭게 해 드리게.”

하고는 술상을 가져오라 했다.

穩話未畢, 生告托體憊, 退居故處.
螺贏施宇, 蠅蛸在戶, 荒落無人. 惟見庭花方綻, 迎人以笑.
階草含露, 使人添淚.
主人何去?

惟草堂，巋然獨存。掃塵就息，萬事無心，五內自摧。纏綿一病。
荏苒數日，自念必逝。

따뜻한 말이 채 마치기 전에, 이생은 몸이 피곤함을 핑계하고는 이전에 거쳐하던 별당으로 물러났다.

땅벌이 집을 지었고, 거미줄이 문을 두르고 있어 퇴락한 집에서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 오직 뜰 안에 꽃이 바야흐로 피어서 웃음으로 사람을 맞이하였다. 섬들의 풀은 이슬을 머금고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더하게 하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

주인은 다시 왔건만 미인은 어디에 갔는가?

오직 초당만이 우뚝이 홀로 남아 있었다. 먼지를 쓸고 누웠더니 모든 일에 생각이 없고, 오장이 끊어져서 온갖 병이 얹히는 것 같았다. 이생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適歷月明之夕，沉吟長嘆，輾轉反側。
忽聞牆外，何哭聲。如怨如訴，節節悲傷，依稀若娘子之響音。
覺其有異，扶病急起，攬衣推窓，舉首視之。
月色照耀，人影乍拂，所懷伊人，以淡粧素服，斜倚短垣。
哀號怨辭道盡顛末，丁寧有知。

마침 달 밝은 저녁이어서 깊이 신음하고 깊이 탄식하며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홀연 담 밖에서 곡성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몹시 원망하는 듯도 하고 애절히 호소하는 듯도 하였으며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가 마디마디 슬프고 아프게 들려왔다. 마치 낭자의 소리와 비슷한 듯하였다.

이생은 괴이하게 여겨, 아픈 몸을 부축하고 급히 일어나 옷을 잡으며 창을 열고 머리를 들어 살펴보았다. 달빛이 흰하고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하는데,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이 연한 화장을 하고 흰옷을 입고서 짧은 담에 기대어 있었다. 슬프게 울면서 원망의 말로 지나간 일을 홀로 되뇌는데,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於是，半信半疑，一喜一驚，顛倒出而握手言曰：
“眞耶？僞耶？娘是誰也？吾未記也，何怨慕之切而感我如是？
眞是娘也，何情禮之疏而遠我至此？”
曰：“妾卽烏有蘭也。君昨覓門外之窈所？
一文之訣，在君則出於情曲，而在妾則豈非榮寵哉？
杓骨將膚，孤魂更殊，欲爲一謝，而且感君想念。
雖在幽冥，實所惻愴。是以，與君聞知而已。”
生頗知其意，多方諭之曰：

“顯晦殊塗, 人雖忌憚, 思情切至 余所不疑.”
乃挽袖入堂,

이에 반은 믿을 수 있고 반은 의심이 나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놀라서, 엎어지고 자빠지며 나아가서 손목을 잡고 말했다.

“이게 꿈이오, 생시요? 낭자는 누구요? 나는 기억이 나지 않거니와, 어찌 원망과 사모의 정이 간절하기로 나를 이같이 흐느끼게 하시오? 정말로 남자일진댄 어찌 정과 예의가 식어서 이같이 나를 멀리하시오?”

“저는 유란입니다. 낭군은 어제 성문 밖의 무덤을 보지 아니하였습니까? 낭군이 쓰신 글월이 낭군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정에서 나왔겠지마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찌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썩은 뼈에 장차 살이 붙고 외로운 혼이 다시 사랑을 찾게 되면 사례를 하옵고 또 낭군이 생각해 주시는 데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옵니다.

다만 이미 저승에 있는 몸이오니 실로 슬픈 일입니다. 다만 낭군이 들으시고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옵니다.”

이생은 자못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지성으로 타이르며,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사람들이 비록 꺼리는 바이나, 사정이 간절하기로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오오.”

하고는, 소매를 끌고 별당으로 들어갔다.

備述聞報之意, 違約之由, 以謝感病之苦, 殞身之節.

娘子乃收淚自敘曰:

이생은 소식을 급하게 들은 것과, 가약을 어기게 된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고는, 병이 들어 괴로워한 것과 유란이 몸이 마친 절개에 대한 사례를 하였다.

그러자 유란은 눈물을 거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妾本賤流, 早失伉儷, 要學三貞, 自固一心.

邂逅君子, 怜之愛之, 俾挑文君之興, 惟慕豫讓之烈.

雖非糟糠之親, 長侍巾櫛之枕, 胡爲乎好事多魔, 佳期易阻, 君子忽然萬里.

賤妾自顧一身, 生殞同居而言不踐, 日月爲盟而盟不尋.

別而不及言, 去而不知故, 因此感病, 浸綿失性, 微命可憐.

非不知偷生之安, 平生多愧, 反不知謝世之早.

久甘心玉碎, 決意珠沉, 若飛蛾之撲灯, 似赤子之入井.

縱知稟命之自薄, 豈無由君之深恨? 因哽塞無已.”

“첩은 본래 비천한 사람으로서 일찍 짝을 잃었으나, 삼정⁴²⁾을 잘 배워 마음을

42) 부녀자의 정렬(貞烈)을 기리는 말.

하나로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뜻밖에 군자를 뜻밖에 만나 사랑을 받고서, 탁문군⁴³⁾의 흥취를 돋우고 오직 예양⁴⁴⁾의 정열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강의 처⁴⁵⁾는 아니어나 길이 낭군을 모시고자 하였더니, 어찌 된 일인지 좋은 일에 마⁴⁶⁾가 많아 좋은 시절이 막히고, 낭군께서는 홀연 만 리 길에 오르시고 말았습니다. 비천한 첩이 스스로 일신을 돌아보니, 같이 살고 같이 죽으려고 하였던 그 말을 실천할 수 없고 일월을 두고 맹세했으나, 그 맹세를 좇을 수 없었습니다.

작별한다는 말도 없었고 가시는 것도 몰랐던 까닭으로, 이로 인하여 병에 걸리고 위중하여 실성하니 존재 없는 목숨이나마 붙잡하였습니다. 삶의 평안함을 피하기를 알지 못함이 아니었습니다만, 평생에 부끄러운 일이 많아 도리어 세상을 저버리는 것이 빠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슬이 깨어지는 것을 달게 여기고, 구슬을 묻어 버리기로 뜻을 결정하고 보니, 마치 나는 모기가 등을 치는 것과 같고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록 목숨을 받음이 짧음을 알았으나, 어찌 낭군으로 말미암은 깊이 원한이 없었겠습니까? 목이 메일 뿐입니다.”

生慰之曰:

“娘子之於我，實是天緣，而非人力之所敢聞也。

只憾鳳已折而鸞分，豈意鏡重圓而絃續？

理實難謀，事甚奇稀。”

仍與之就衾，衾歡會款，若乎昔。

枕其臂，比其頰，喜溢而情言曰：

“娘云歿矣，餘旣生者。

幽冥間會合而肥膚之契活，情曲之懇懃，比昔若今，少無差異，余所未曉也。”

曰：“幽明懸殊之說，誠在他人。

妾在於君，生旣爲至節之間，今其有異之疑？

如有異也，初不當狎褻，褻有而疑，妾不云矣。”

이생이 유란을 위로하며 말하였다.

“낭자는 나에게 실로 하늘이 내린 인연이었으나,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요. 다만 봉황이 부러지고 난새가 나뉘는 원통함을 당하였지만, 깨진

43) 중국 서한 때의 음악가. 부호인 탁왕손의 딸로, 거문고를 잘 탔다고 함.

44)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임금 지백(智伯)이 조양자(趙襄子)에게 죽임을 당하자, 몸에 옷칠을 하여 문둥이로 가장하고 숲을 삼켜 병어리 행세를 하면서 원수를 갚으려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발각되어 죽었음.

45)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를 이르는 말.

46) 일이 꼬이게 해살을 부리는 요사스러운 장애물.

거울이 합쳐지고 끊어진 줄이 이어짐⁴⁷⁾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으리오. 실로 믿기가 어려우니, 기이하고도 드문 일이외다.”

하고는, 같이 잠자리에 드니, 이불 속의 즐거움은 의심 없이 그 옛날과 꼭 같았다.

이생은 팔을 베어주고 뺨을 맞대고 기쁨에 넘치는 정다운 말로 속삭였다.

“남자는 죽었다 이르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 유명⁴⁸⁾ 간에 만남에 있어서 살 쥔 살결의 포동포동함과 애뜻한 정의 은근함은 옛날에 비하여도 지금과 같고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나로서는 깨어있음을 인정하기가 싫소이다.”

유란이 답하기를,

“유명이 현저히 다르다는 말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나 있는 말입니다. 첩은 낭군의 덕택으로 지절⁴⁹⁾ 동안에 이미 살아났으니, 지금 다름이 있음을 의심하겠습니까? 다름이 있다는 것은 처음 우리가 가까웠던 일을 부당하게 여기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첩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俄頃, 星斗西傾, 鐘聲遠聞. 娘子推枕, 拂裳灑淚,

告別曰: “思情終此疎矣.”

曰: “來何遲也, 且情疎之說, 何忍急劇?”

曰: “神道自多乖宜, 行迹不如心誠.”

曰: “是何言也, 是何情也?”

更把羅衫, 屢問後期, 誓不相捨.

娘子回顧低聲曰: “君子之有情, 至此, 妾豈無情哉? 謹副教矣.”

自是之後, 每黃昏而來, 鷄鳴而去. 纏綿之情, 更新恰恰.

이윽고 북두칠성이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새벽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유란은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 옷을 입고 눈물을 뿌려 작별의 말을 하였다.

“우리들의 사랑은 이로부터 좀 멀어질 것입니다.”

“어찌하여 더디게 오셨으며, 또 정이 떨어진다는 말은 어찌 차마 그렇게도 빨리 하오.”

“신도⁵⁰⁾는 정상에서 어긋남이 많아 행적이 뜻과 같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 무슨 말이며 그 무슨 정이오이까?”

이생은 다시 유란의 옷자락을 잡고,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는가를 묻고 또 물으면서 맹세코 농지를 앓았다.

유란은 이생을 쳐다보며 나직하게,

“낭군의 유정함이 이에 이르렀는데, 제가 어찌 무정하겠습니까? 삼가 가르침을

47) 헤어진 남녀가 다시 만나는 일.

48) 저승과 이승.

49) 동지(冬至).

50) 귀신의 일.

받들겠습니다.”

고 했다. 이러한 후로부터 유란은 매양 해가 어두워지면 왔다가 새벽닭이 울면 돌아가곤 했다. 그러니 서로 떨어지기 어려워하는 정을 다시 새로워지고 흡족해졌다.

一夕, 生喟然曰:

“娘子之倏忽去就, 實非佳愜, 而同居同壙之盟, 抑又安在哉?

一生一殞, 余獨愧也. 願復沒身, 要與娘子, 偕往偕來, 豈非好意耶?”

娘子瞿然改容曰:

“君子兮! 君子兮! 此何教也? 妾以莫賤之質, 沒亦不足可哀, 而事亦屬既往.

君以若尊貴之體, 父母在上, 當自重而自愛, 何其率爾, 思之爲之, 惶恐焉.”

하루는 저녁에 이생이 한숨을 후유 쉬고 탄식하면서 말했다.

“남자가 빨리 왔다 빨리 갔을 실로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아니며, 같이 살고 같이 묻히자는 맹세는 도대체 어디에 있소?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을 나만이 홀로 부끄러워 여기겠소. 바라건대 나도 죽어서 모름지기 남자와 더불어 같이 갔다가 같이 오는 것이 어찌 좋은 뜻이 아니오?”

유란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남군이여. 남군이여! 그 무슨 말씀이오니까? 제가 가장 천한 몸으로서 죽은 것도 족히 슬퍼할 것이 못 되오며 또 이미 지나간 일이옵니다. 남군은 존귀하신 몸으로 부모님이 살아 계시므로, 마땅히 몸을 신중히 하고 자신을 아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경솔히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니 정말 황공하옵니다.”

曰: “余於父母, 既爲不肖, 貽憂者多, 而一生一歸, 亦理之當然, 不可逃也.

以大聖之德, 有伯魚之慘, 以顏子之賢, 有二毛之夭, 況吾萬萬不較者, 何足惜也?

但所忌者, 病殞之際, 慟之難耐.”

曰: “此則不足慮也. 第有妙理, 此等之說, 不復掛齒.”

이생이 말하기를,

“내 부모에 대하여 이미 불초한 자식이 되어 근심을 끼친 일이 많으며, 한번 죽는 것은 또한 이치에 당연하므로 피할 수 없소이다. 공자와 같은 덕으로도 백어의 참사⁵¹⁾가 있었으며, 안자 같은 어짊으로도 이모의 요절⁵²⁾이 있었으니 하물며 나는 아무것도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족히 애석하게 여길 것이 있겠소이까?

51) ‘백어’는 공자 아들 리(鯉)로 공자보다 먼저 죽었음.

52) ‘안자’는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 ‘이모’는 노인의 머리. 안회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덕의 실천에서 가장 뛰어났지만, 32세에 요절하였음. 안회가 죽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도다.”라고 탄식했다고 함.

다만 꺼리는 것은 부친의 병환이 나오신 때에, 내가 죽었다고 부모님들이 통곡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을 뿐이오.”

하니, 유란이 답하기를,

“그렇다면 근심하지 마옵소서. 저에게 오묘한 이치가 하나 있사오니, 그러한 말씀은 다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하였다.

曰: “妙理何如?”

娘子含默無言, 再三堅持, 乃以手拒臂, 頻頻云道, 終不獲已,

答曰: “人之病者殞者, 莫不鬼覺, 而痛難之狀, 不可書形.

至於以妾, 待君之道, 不與他同列也.

雖病不痛, 雖殞不異, 精靈自在, 知覺自知.”

曰: “然則而此之道, 善爲周旋, 以圖無疆之興樂, 余實所願, 娘何嫌乎?”

曰: “教意至此, 第當今夕試之, 一從妾一宵則可驗矣.”

그러자 이생이 다시 묻기를,

“그 묘한 이치가 어떠한 것이오?”

하니, 유란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손으로 이생의 팔을 잡고 여러 번 말을 하려고 하다가는, 마침내 마지못하여 대답했다.

“사람의 병든 자와 죽은 자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지만, 아픈 상태는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낭군을 대접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비록 병이 들었더라도 아프지 아니하고, 비록 살아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정신도 그대로 있고 느낌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생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써 잘 주선하여 끝없는 즐거움을 피하는 것이 내가 실로 원하는 바이운데, 낭자는 어찌하여 꺼리나이까?”

하니, 유란이 답하기를,

“가르쳐 주시는 뜻이 이와 같으니, 그러면 오늘 저녁을 당하여 시험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룻밤만 지내고 나면 나타날 것입니다.”

하였다.

翌日昧爽, 娘子先起, 坐枕邊, 被髮鬢髻, 織淚長嘆曰:

“世事忽焉, 君子已矣.”

生纔罷一睡, 半疑半驚曰:

“昨我今我, 今我昨我, 昨是而今非耶?”

精神所透, 心身所存, 少無差錯, 而但穩一睡而已.

娘子, 何以爲我悲哉?”

曰: “君不信歟? 妾之云妙理, 是也. 姑不可喧譁狼藉.”

乃移席南壁底, 少俟察動靜, 東方既明, 紅日射血.

血壁之外, 有迹殊常, 依依然相語曰:

“可憐哉青春! 可哀哉父母! 門闕也可惜! 客斃也可冤!”

數輩奴卒, 啓戶睨視, 或者挾布, 或者理木, 雜遝繼進.

恍惚若欽而棺之樣, 丁丁覆盖而出.

이튿날 새벽에 유란은 먼저 일어나 베갯머리에 앉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깊이 탄식하면서 말했다.

“세상의 일이 놀랍구나, 군자가 이미 이리 되었는가?”

이생이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반은 의심하고 반은 놀라며 말하기를,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이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인데, 어제는 옳고 오늘은 틀렸던가? 정신도 초롱초롱하고 심신도 그대로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이, 다만 조용히 한잠 잤을 뿐이오. 남자,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소?”

남자가 이르기를,

“남군은 믿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말한 묘한 이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은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는, 자리를 남쪽 벽 밑으로 옮겨 앉아서 동정을 살피니, 동방은 이미 밝았고 붉은 해가 피를 쏟고 있었다.

붉은 벽 밖에 수상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있어 가까이 서서 말했다.

“불쌍하도다, 청춘이여! 슬프도다, 부모여! 아깝도다, 문벌이여! 원통하도다, 객사하였구나!”

하더니, 여러 노복들이 문을 열고 들여다보고 나서, 어떤 놈은 베를, 어떤 놈은 나무⁵³⁾를 뒤섞여 다스렸다. 그러다 홀연 시체를 관에다 넣는 시늉을 하고 땅땅거리면서 뚜껑을 덮고 나갔다.

生靦然知悉, 始疑身殞, 慼慼然含淚語曰:

“人命, 何其容易?”

吾受生於天也, 有父母, 而子之道不盡, 有親戚, 而敦睦之情不知.

生既爲人中不良, 沒亦當地下有責.”

自莫禁悲, 涕淚滂沱.

古語有之曰: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誠非虛言也!

이생은 눈을 살며시 감고 하는 것을 다 보고는, 비로소 몸이 죽었는가 의심하고서,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중얼거렸다.

53) ‘베’는 수의, ‘나무’는 관.

“사람의 목숨은 어찌 그리 쉽게 죽는가? 내 명은 하늘로부터 받아 부모가 있어도 자식된 도리를 다 못하고, 친척이 있어도 화목을 돈독히 하는 줄을 알지 못하였구나. 살았을 때에도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불량한 사람이 되었고, 죽어도 또한 지하에 가서 처벌이 있을 것이로다.”

하면서, 스스로 슬픔을 금치 못하니, 흐르는 눈물은 비가 쏟아지는 것과 같았다. 옛말에 하였으되,
 “새는 죽으려고 할 때에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으려고 할 때에 말이 착하다.”
 라고 하였으니, 실로 헛된 말이 아니었던가 보다.

以生之陷溺之見於云歿之後，不無一二惻怛之端。

是日以後，娘子出入無時。

或晝枕會歡，或夜話讌醉，樂未盡而情無窮。

生猶以爲自得，戲言贈之曰：

“娘子之妙術，其能使我考終命。

考終命五福之一，感謝僕僕，無以名言。”

유란은 이렇게 이생을 물속에 빠뜨리는 듯이 떠나보낸 것이, 가엾고 슬픔이 없지는 않았다. 이후부터 유란은 이날부터 수시로 출입하였다. 혹은 낮에도 자며 즐거워하고 혹은 밤에 술 마시며 이야기하기에 밤 가는 줄도 모르고 취하니 즐거움은 미진하였고 사랑은 무궁하였다.

이생은 스스로 흡족하여 농지거리를 유란에게 하며 말했다.

“남자의 묘술로 능히 내 목숨을 좋게 마치게 하여 주오. 제 명대로 살다 죽는 것은 오복⁵⁴⁾의 하나라 하니 감사하여 마지 않겠소.”

娘子本是，通敏多情之人也。

頻問飢渴，數進饑。

生咨其飲食所從來曰：“是亦有妙方！妙方何也？”

曰：“討食。”

曰：“討食云者，何也？”

曰：“未能形容。”

曰：“肯不詳言，使我一見何如？”

曰：“必欲見知，不須擇日，今朝 將與君偕往。”

유란은 본시 민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자주 배고프고 목마른가를 물으며, 때때로 좋은 음식을 갖다 대접했다.

이생은 그러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감탄하면서 말했다.

54)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희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

“거기에도 또한 묘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묘방은 어떠한 것이요?”

“토식이라는 것이지요.”

“토식이라 이르는 것은 어떠한 것이요?”

“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좋아하지 아니하니, 나에게 한번 보게 해 주는 것이 어떠하오?”

“꼭 보고 싶고 알고 싶으시면, 날을 택할 필요 없이 오늘 아침에 낭군과 더불어 같이 가 보시지요.”

生以爲好，彈冠拂衣，苦將啓行。

時維五月，日氣甚熱。娘子從傍唾笑曰：“如此苦炎，衣冠何爲？”

曰：“三路街上，十目所視，十手所指。我非無賴輩，蓬髮野頭，豈云可乎？”

曰：“君之不通，何如是固也？不辨身前身後之異，只言持身行身之操。

人不見我而以疑見，物不聽我而以爲聽。

無聲無臭者天也，而鬼神之道無體焉。無形無迹者陰陽也。

而君妾之行儀焉，何所顧忌，何必裝束？”

曰：“人雖不見，獨不愧於心乎？然而其無迹之說，從不可信。”

이생은 좋아라 하고, 관을 튕겨 쓰고 옷을 털어 입고는 곧 나서려고 했다. 때는 오월이라 날씨가 매우 더웠다. 유란은 옆에 섰다가 침을 뱉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같이 더운 날씨에 의관은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큰길에 나서면 여러 사람의 눈이 여러 손가락질을 할 것이요. 내 무뢰배가 아닌 이상 더벅머리에다 관을 쓰지 않는 것이 어찌 옳다고 말할 수 있소?”

“낭군의 불통함은 어찌하여 그렇게 고지식하십니까?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몸도 구별하지 못하고 공연한 조심만을 일삼으시는군요.

사람은 우리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있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는 것은 하늘이며, 귀신의 도는 공허하고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는 것은 음양이옵니다. 낭군과 제 처신을 돌아보니 꺼릴 바가 무엇이 있으며, 꾸미거나 차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록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로서는 어찌 마음에 부끄럽지 아니하겠소? 그러나 자취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적이 마음이 놓이는구려.”

生輕着單衣，携手出門。自顧其身，或恐人知。

步如鮫人之窺海幕，心如鶯巢之掛風枝。

掩過交市處，往投吏房家。

所過三四里，已閱萬千人，磨肩擊臂者多矣，一無見知之樣。

이생은 가벼운 흠옷을 입고, 유란의 손을 붙들고 문을 나갔다. 이생은 자기 몸을 돌아보고 혹 사람이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걸음걸이는 교어⁵⁵⁾가 바다의 장막을 엿보는 것과 같았고, 마음은 피꼬리의 집이 바람 부는 가지에 걸려 있는 것과 같았다.

어느덧 저자 있는 곳을 지나 이방의 집으로 갔다. 삼사 리를 지나는 동안 이미 수천 명의 어깨를 스치고 팔을 치는 자가 많았으나, 한결같이 보거나 아는 시늉을 하는 자는 없었다.

時吏房, 仕退朝食. 娘子, 先到房門外.

顧謂曰: “君, 止此靜觀.”

卽突入對床, 人不覺知.

左手打其頰一, 右手舂其胸三, 吏房忽然落匙, 兩手抱胸, 流涎翻目, 痛聲大段.

一家驚急. 長子季女少妾寵妾, 叢手扶救.

未由少聞, 乃問張巫, 復訪吳盲.

皆以客殞男鬼, 冤斃女鬼, 同心協謀, 雄唱雌和, 一時侵頻.

盛具酒食, 呼名飽飯, 爲可云.

乃驗占辭, 買餅沽酒, 烹羊炮羔, 肆筵庭中, 飲食狼戾.

이때 이방은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유란은 먼저 방문 밖에 가서 이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낭군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가만히 보십시오.”

하고는, 바로 들어가서 밥상을 대하나, 사람들은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체했다.

왼손으로 뺨을 한번 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세 번 치니, 이방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안으며 침을 흘리고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아프다고 대굴대굴하였다. 그러자 온 집안이 발각 뒤집혀 버렸다. 큰아들, 둘째 딸, 아내와 첩들이 손을 모아 주물러 구하러 하였다.

방법이 없자 부랴부랴 장가란 무당을 찾아가 물어보고, 다시 오가란 장님을 찾았다. 그들은 원통하게 죽은 남자 귀신과 여자 귀신이 서로 짜고는 앞서면서 따르면서 와 일시에 달려들었다고 했다. 술과 밥을 성대히 차려 놓고 귀신을 불러 배부르게 먹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점쟁이들의 말을 시험해 보기 위해, 먹을 사고 술을 받고 양고기를 삶고 굽고 해서, 뜰 가운데 자리를 펴고 음식을 낭자하게 차려 놓았다.

娘子曰: “妙方是已.”

挽手要醉. 生固辭不得, 略于下箸.

娘子乃裹乾脯曰: “可以資後日糧.”

55) 남해에 산다는 물고기 모양의 사람. 인어(人魚).

于橐于囊, 男負女戴, 還投巢穴.
 生撫復吐酸而言曰: “今日之事, 豈不至妙哉.
 余於前世, 固不信鬼神之說, 而今可驗幽明之分.
 因此揚揚, 以爲誣弄一時, 在於掌握矣.”

유란은 이것을 보고 이생에게,
 “묘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는, 이생의 손목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했다. 이생은 굳게 사양하였으나,
 할 수 없이 조금 마시고는 젓가락을 놓았다.
 유란은 마른 고기를 싸면서,
 “후일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하고는, 보자기에 싸고 자루에 넣어, 사내는 지고 계집은 이고 하여 별당으로 돌아왔다.
 이생은 배를 어루만지고 쉰 냄새를 토하면서 말했다.
 “오늘 일은 참 묘하군. 내가 전세에 있어서 굳게 귀신의 설을 믿지 아니하였다가, 오늘에서야 유명한 다름을 겪어 보았소. 이제 보니 무당을 농락하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구려.”

數日後, 娘子又問曰: “君無一飽之意歟?”
 曰: “有意.”
 曰: “閭閻間, 東討西索, 甚是殘劣, 而行世之不高也.
 今番, 討出於使道, 未知君意何如?”
 曰: “惡是何言也? 彼此之間, 嘗有兄弟之誼, 我雖十旬九食, 豈忍向侵頌乎?
 更占他處.”
 曰: “義理以言歟? 情禮以言歟? 假令, 君子在世之日, 討食於使道, 則誼密而然耶?
 妾以爲親密之致也. 身前身後, 少無間然, 今一討出, 何嫌之有?”
 曰: “娘言可也.”

며칠 후에 유란은 또 물었다.
 “낭군은 한번 포식해 보고 싶은 뜻이 없습니까?”
 “뜻은 있지.”
 “여염집 사이에 동서로 다니며 함부로 빼앗아 먹는 것은 매우 잔인하고 용렬하며, 고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사또한테 가서 빼앗아 먹고 싶으니, 낭군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그와 나의 사이는 일찍부터 형제와 같은 정의가 있었는데 내 비록 십순에 구식⁵⁶⁾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찌 차마 빼앗아 먹겠소? 다시 다

56) ‘열흘에 아홉 번 밥을 먹는다.’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뜻. 원래는 ‘삼순구

른 곳을 찾아보시오.”

“의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정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가령 낭군이 살아 있었을 때 사또한테 얻어먹은 것이 정리가 깊어져서 그러하십니까? 인정이 많아서 그러하십니까?

저는 매우 친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조금도 멀리함이 없으니, 이제 한 번쯤 음식을 빼앗아 먹는데, 무슨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대의 말이 옳소!”

娘子只束單裳而起曰：“日炎無廬。願君既試之，人誰見之耶？”

生以爲然，赤身出門，行色偃蹇，形容伶仃。

列垂金莖，低昂於雙肘之脈，半券銅柱，擾揮於兩股之際。

白晝所視，孰不堪笑，嚴令之下，莫敢饒舌。

以此之樣，步過三門人海中。

卽投宣化堂大廳上，娘子退立細語曰：“使道在彼，願君以向來吏房家之樣。

入打使道，第觀動止。”

曰：“吾非熟手，抑有嫌然。”

曰：“事甚不難。妾則以上下之分，不敢，君何嫌之有？”

유란은 훌치마만 걸치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날이 더워 염려가 되웁니다. 낭군은 이미 시험해 보았거니와,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까?”

이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알몸으로 문을 나서니 행동이 어수룩하고 모습이 초라했다. 축 늘어진 금경은 두 방울 사이에서 끄덕끄덕하고, 주먹의 반만한 동주⁵⁷⁾는 양다리 사이에서 달랑달랑했다. 대낮에 사람이 보면서 누구나 웃지 않을 수 없었지만, 엄중한 명령하에 감히 지껄이지 못했다.

그러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나 삼문⁵⁸⁾을 걸어서 지나갔다. 즉시 선화당 대청 위로 올라가서, 유란이 물러서며 이생에게 속삭이기를,

“사또가 저기 있으니, 낭군은 이전 이방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해 보시지요. 들어가서 사또를 치고 그 거동을 보십시오.”

“나는 익숙하지 못하는데 어찌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소?”

“일은 그리 어렵지 아니하웁니다. 저는 상하의 분수가 있어서 감히 할 수 없거니와, 낭군은 무슨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生乃不得已，跼蹐進前，躑躅徘徊。

식'인데, 이생의 무식함을 풍자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임.

57) '금경' 과 '동주' 모두 구리 기둥으로 남자의 성기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

58) 대궐·관청 등의 앞에 있는 세 개의 문

若見如知, 不卽舉措, 常目相察之際.
 伯暗以煙竹, 舂其腹曰: “吾兄長子, 此何樣也?”
 生乍驚自蹲, 始覺身生. 醉夢醒於三月, 薰風吹於一場.
 俄恍惚而自惑, 迺丁寧而無疑. 覺其見賣一塊一墳.
 缺然自喪, 罔知所爲.
 伯卽令取一襲而衣之.

이생은 마치 못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머뭇거렸다. 자기가 보이는 것을 아는 것 같아서 바로 곧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살피고 있었다.

이때 감사가 가만히 담뱃대로 이생의 배를 쿡 찌르면서 말했다.

“자네, 이 무슨 꼴인가?”

이생은 깜짝 놀라며 털썩 주저앉고는 비로소 자기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취했다가 삼월 봄날에 갠 것과 같았고, 훈풍이 한 줄기 불어온 것과 같아 정신이 들었다.

갑자기 당황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비로소 정녕 의심이 사라졌다.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자기를 속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서운하였고 슬펐으며, 어디로 가야할 지를 알 수 없었다.

감사는 즉시 관비에게 명하여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입히게 했다.

生尤不勝羞恥.
 乃辨行資, 不見伯, 不見女, 晝宵行邁, 轉轉低京.
 父母見其容之顛顛而憂之, 俾僕察其行之草草而疑之.
 答以路中狼狽, 致病苦楚.
 生, 退居精舍, 意其湔憤, 一心自誓, 孜孜勤勤.

이생은 더욱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노자를 마련해, 감사도 유란도 만나보지 않고, 그곳을 떠나 밤낮으로 달려 겨우 서울에 도착했다.

부모들은 그의 얼굴이 험쭉함을 보고 근심을 하였고, 노비들은 그 차림이 초라함을 살피고 의심했다. 이생은 오는 데 애를 먹고 병이 들어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이생은 정사로 물러가 거처하며, 복수에만 뜻을 두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고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是歲季秋, 適值謁聖, 懷書一進, 幸參題龍.
 唱第未幾, 旋擢翰閣.
 萱闈供歡之榮, 親戚栢悅之慶. 遠邇聳動, 讚不容口.

是時, 西州饑荒, 人心罄罄.
聖后軫念, 博詢臣隣, 抄啓繡衣, 乃李翰林也.

그해 가을에 마침 알성⁵⁹⁾하던 때를 만나게 되어, 글을 품고 가서 올렸던 바, 다행히 임금의 눈에 들게 되었다.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한림학사로 뽑혔다. 부모님이 다 같이 즐거워할 영광이요, 친척들도 다 같이 기뻐할 경사였다. 원근이 모두 기뻐 날뛰며 칭찬하느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때 서쪽 지방에 심한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였다. 임금은 근심하고 신하들을 보고 암행어사가 될 인재를 뽑아 오리라 했더니, 곧 이한림(이생)이 뽑혔다.

翰林拜肅新命, 深幸洗雪之會.
理裝卽行, 轉轉西來, 道路悠悠, 意氣軒軒.
所過山川, 風景依舊, 逝者如斯.
二水中分綾羅島, 屹然可記, 三山半落牧丹峯, 曾日月之幾何而江山之歷歷.
不勝佳興, 乃拈一詩曰:

이한림은 새 명령을 분부받고, 복수할 기회가 닥쳐왔음을 매우 다행으로 여겼다. 행장을 다스려 곧 떠나 전전하면서 서주⁶⁰⁾로 가니, 가는 길이 흥겨웠고, 의기가 양양하였다.

지나는 곳마다 산천의 풍경은 옛날과 다름이 없었고, 그 옛날의 이생도 변함이 없었다. 두 물줄기가 나뉘는 능라도는 우뚝이 보여 기억에 떠 올랐으며, 삼산⁶¹⁾이 반쯤 무너진 듯한 모란봉은 세월을 겪기를 몇 번이나 하였건만 강산은 뚜렷하였다. 이생은 즐거운 흥취를 이길 수 없어 곧 시 한 수를 지었다.

大同門外水南流, 桂棹蘭檣係古州.
天地寄身初脫殼, 江山慣目更登樓.
永明深榻僧雲夢, 浮碧高臺客夜愁.
衣繡暗行人不識, 聖恩自重伴春遊.

대동문 바깥 물은 남쪽으로 흐르는데
계수나무 돛단배가 고주에 걸려 있네.
천지에 몸을 붙여 이제야 벗어났고
강산이 반가워서 다시 다락에 올랐구나.

59) 조선 시대,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공자 신위에 참배하던 일

60) 평안도 지역.

61) 삼신산(三神山). 중국 전설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州山).

영명사 깊은 탑은 중들의 구름 같은 꿈이고
 부벽루 높은 대는 나그네의 시름이로세.
 수의 입은 암행어사, 사람들은 모르는데
 성은을 소중히 여겨 봄 경치를 즐기누나.

咏罷揮鞭, 上練光亭, 四顧拭睛.
 昔時草堂, 杳然入目.
 乃取酒放歌, 歌曰:

을기를 마치고 나서, 채찍을 휘두르며 연광정에 올라가서 사방을 돌아보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그 옛날의 초당은 아득히 눈에 들어왔다.
 이생은 술을 마시고는 또 노래를 지어 불렀다. 노래에 이르기를,

桃園兮!
 昨到劉郎今重來,
 風物殊兮人不識.
 短筇兮行, 弊布兮纒縷.
 世昏昏而開眼.
 時乎來兮有爲, 男兒兮得意.

도원이여,
 찾아 떠난 허탕하게 떠난 길 이제 다시 돌아오니,
 풍물도 달라졌고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네.
 짧은 지팡이에 의지했고, 해진 의복이 남루하지만
 까마득한 세상에 눈이 열리니
 때가 오면 남아의 뜻을 펼 것이로다.

乃與從人, 密密約束.
 是夜將半, 驛卒十數輩, 高擣馬牌, 各持杖木, 撲楛三門, 一時誠聲曰:
 “暗行御史出到!”
 雷電驚於百里, 天地混於一城.
 官奴吏房, 奔馳於舉行, 座首別監, 瞠若於街亭, 遑遑汲汲, 殆若鼎沸.

노래를 마치고 역졸들과 더불어 비밀스럽게 약속을 해 두었다.
 그날 밤중에 역졸 여남은 명이 마패를 높이 들고, 각각 몽둥이를 가지고 삼문을
 두드리며 일시에 소리 내어 외치기를,
 “암행어사 출두요.”

하니, 우레와 번개가 백 리 밖에서 놀라고, 천지가 성안에서 뒤집히는 것과 같았다.

관노와 이방은 일을 단속하느라고 이리 내닫고 저리 내달았고, 좌수와 별감은 눈을 휘둥그레 하고 거리에서 당황하였으니, 마치 술의 물이 끓는 것과 같았다.

伯方與守廳妓桂月，同衾於堂。

忽於門庭之外，聞暗行出到之聲，出其不意。

匆忙急起，不遑明燭，暗中手探，纔取一衣倒着，乃桂月之廣錦袴也。

攬走內軒，貌樣殊怪。桂月亦裸體，忙退髓後而入。

使道本是好善諧諛者也。憂患之中，指桂月纖腰殘脚之際而戲言曰：

“寒當觸感否？何其鼻水之多流耶？”

桂月，乍顧而反曰：“使道，陞資致位否？何火腎之出班表顯耶？”

然如此厄會之值 戲談何爲？願少加精神 便宜圖之。”

그때 감사는 마침 수청 기생 계월과 같이 자고 있었다. 갑자기 뜰문 밖에서 암행 어사 출두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나온지라. 황급히 일어나 촛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데서 옷을 찾다가, 겨우 뒤집힌 옷 하나를 잡으니, 곧 계월의 넓은 비단 속곳이었다.

동헌 안으로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괴이하고 수상하였다. 계월도 또한 알몸으로 황급히 뒤따라 들어갔다.

감사는 본시 우스개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었다. 우환이 있는 중에서도, 계월의 가는 허리 아래 사타구니 사이를 손가락질하며 희롱의 말을 했다.

“추위를 당하여 감기가 들었느냐? 어찌 그리 콧물을 많이 흘리느냐?”

계월이 슬쩍 돌아보며 대꾸했다.

“사또께서는 승자⁶²⁾하시어 벼슬이 더 올랐습니까? 어찌 그리 화신⁶³⁾이 툭 튀어나왔으며 큼직하십니까? 그러하오나 이와 같은 재앙이 닥쳐온 이때 농지거리가 무엇입니까? 요컨대 좀 정신을 차려 무사하기를 도모하옵소서.”

若是遑急之頃，御史已入宣化堂，高踞別座。

特命吩咐曰：“封庫舉行，刑具待令，而勿論誰某，禁勿投刺。”

令下，吏奴爭奔告伯。

伯揣其事機之難免，且昧御使之爲誰。使通引數輩，察其動靜，

記其容貌報曰：“御史，年當三十許，而身容舉止，恰然似乎前日李郎主，事甚訝惑也。”

伯半信半疑，未能的然。乃召蘭分付曰：

“汝於李郎，多情親熟之間也。

62) 당하관이 정3품 이상의 당상관으로 품계가 오르는 것을 말함.

63) 남자의 성기.

今御史道, 酷似李郎云, 姑未知真贗, 汝須註探詳報."

이처럼 황급한 때에 어사는 벌써 선화당으로 들어와서, 높이 걸터앉아 있었다. 특명으로 분부하였다.

“봉고⁶⁴)를 하고 형구를 갖추어, 누구인들 막론하고 투자⁶⁵)를 못하게 하라!”

명이 떨어지자 아전과 관노들이 다투어 쫓아가서 감사에게 아뢰었다.

감사는 돌아가는 형편을 면할 수 없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또 어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몇 명의 통인과 관노에게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다.

관노들이 돌아와 어사의 용모를 아뢰었다.

“어사의 나이는 삼십 세 가량이고, 얼굴이나 거동이 흡사 전날의 이랑과 같으니, 일이 매우 의아하고도 괴이합니다.”

감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확실히 알 수 없었기에, 유란을 불러 분부하였다.

“너는 이랑과 다정하고도 친숙한 사이라. 오늘의 어사또는 이랑과 흡사하다 하거니와, 아직 그 진위를 알지 못하고 있느니, 너는 모름지기 잘 살펴보고, 자세히 아뢰어라.”

蘭退出宣化堂, 隱身覘察.

今日御史, 前日李郎耶? 前日李郎, 今日御史耶?

時雖異而人則同, 一毫不錯, 丁寧無疑.

乃還告曰: “不復過慮. 爲御史道, 卽昨者李郎主也.”

伯喜動顏色曰: “吾旣聞此友之登科 未知今日之繡衣.”

於是乎, 收其褫魄, 整其衣冠, 使一通引, 投刺於御史.

유란이 선화당으로 나와 몸을 숨기고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오늘의 어사는 전날의 이랑이며, 전날의 이랑은 오늘의 어사가 아닌가?

때는 비록 다르나 사람인즉 같아서, 추호도 다름이 없고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었다.

곧 돌아와서 아뢰기를.

“다시는 근심을 하지 마옵소서, 어사 되는 사람은 곧 전날의 이랑이옵니다.”

하니, 감사는 기뻐서 얼굴빛을 고치며 말했다.

“내 벗이 이미 과거에 급제함을 들었으나, 오늘의 어사임을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빼앗겼던 혼을 거두고 의관을 가다듬고, 한 통인을 시켜 어사에게 투자를 올리게 하였다.

御史厲聲拒之曰: “吾本不識汝矣. 使道通刺, 何故?”

64) 어사나 감사가 부정을 저지른 한 고을의 원을 파면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봉해 잠그던 일.

65) 윗사람을 처음으로 볼 때에 미리 명함을 드리던 일.

卽縛下通引, 杖三十治之.

伯探拒已云由, 故欲見之, 更無刺, 突入偃然立向,

道曰: “故人, 平安否?”

御史, 視若不見, 聽若不聞, 伯進前握手曰:

“兄, 眞是男兒, 可謂有志者, 事竟成也.

今日, 弟之驚急困境, 反不負兄之昔者見欺.

抑又深度之. 兄之瞥眼間榮道, 豈非由我一誠之致歟?

以是言之, 亦可謂爲兄無負, 負者也, 御史.”

어사는 근엄한 소리로 거절하면서 이르기를,

“내 본래 너를 알지 못하노라. 사또가 투자를 보냄은 무슨 까닭인고?”

하고는, 즉시 통인을 묶어 내려놓고 종아리를 삼십 대 치라 했다. 감사는 거절당했다는 말을 듣고 친히 나아가 보고자 했으나. 다시 투자가 없기로 뛰어들어가 꽃꽂이 서서 어사를 향하여 말했다.

“자네는 평안하셨는가?”

어사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니, 감사는 앞으로 나아가서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로 남아로서 뜻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자네 일은 드디어 이루어졌네. 오늘 아우가 경악하고 황급하고 곤경에 처하였음은, 오히려 자네에게 옛날에 속임을 당한 것보다 못하지 않을 것일세.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게. 자네가 별안간 영화의 길에 올랐음은 어찌 나의 정성의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이로써 말할지니 자네가 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정녕 진 사람은 어사 자네일세.”

御史, 反覆三思, 心自開釋, 口自發笑曰: “時已去矣, 事之宿矣.”

乃進酒飲歡.

伯訟其過欺愆, 以謝蒙恩之榮, 御史半酌半笑曰:

“今日蘇孺文, 與故人飲, 明日爲冀州刺史按事, 適吾之謂也.”

이 말을 들은 어사는 풀이해서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니, 마음은 스스로 조용히 열리고, 입에서는 스스로 웃음이 나와서,

“때도 이미 지났고 일도 오래되어 할 수 없군.”

하고는, 곧 술을 가져오게 해서 감사와 즐겁게 마셨다.

감사가 너무 지나치게 속인 장난을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영광을 사례하니, 어사는 얼굴을 붉히고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은 소유문이 되어 친구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내일은 기주자사가 되어 일을 살핌⁶⁶⁾은 마치 나를 두고 이름일세.”

翌日平明, 御史開座.

大具刑杖, 縛致烏有蘭女, 藁蓆伏階下, 閉閣厲聲曰:

“汝罪, 汝自知之, 一杖物故!”

蘭低聲懇告曰: “少女愚昧, 未知何罪.”

御史, 叩閣怒叱曰:

“公麼女兒, 講弄丈夫, 以生爲沒, 指人謂鬼, 豈曰無罪? 斯速遲晚”

蘭更乞曰: “願御史使道, 暫啓開戶, 俯賜一見.

則少女第有一言, 而爲杖下之鬼, 更無冤矣.”

이튿날 날이 밝자 어사는 직무를 시작했다. 여러 형장을 갖추어 놓고 오유란이란 여인을 묶어 오게 해서, 거적자리에 앉혀 섬돌 아래에 엎드리게 하고는 문을 닫고, 근엄한 소리로 문초를 했다.

“너의 죄를 네가 스스로 알고 있으니 매로써 죽이리라.”

유란은, 나지막한 소리로 간곡히 아뢰었다.

“소녀는 우매한 여자로서 죄지은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어사가 다시 바닥을 두드리며 크게 꾸짖기를,

“관청에 매인 여자로서 장부를 속여 회롱하고,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하고,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라 하였으니, 어찌 죄 없다고 하느냐? 빨리 처치하고 늦추지 마라.”

유란은 다시 빌면서 말했다.

“바라옵건대 어사께서는 잠시 문을 열고 한 번만 보아 주시옵소서. 소녀가 다만 한 말씀만 드린다면 곤장 아래 귀신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원통함이 없겠나이다.”

御史, 未嘗不有情者也.

要其聽言, 而一見故顏, 乃露身, 蘭暫顧仰視, 乍笑曰:

“以生爲沒, 生者自不辨不沒, 指人爲鬼, 人而自不覺非鬼.

欺者過歟? 見欺者過歟?

過欺者, 雖或有之, 見欺者, 不可說也.

且妾爲士卒, 惟聞將軍令而已.

事有主掌, 責有所歸, 士卒何足誅也?”

어사는 일찍부터 인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지라. 그 말을 듣고야 낮익은 얼굴을

66) 소유문은 후한 때의 사람으로 기주자사(冀州刺史)가 되었는데, 친구가 관할 지역인 청하 태수(清河太守)로 있었다. 소유문이 그 친구를 초청하여 술을 대접하고 평소의 우정을 나누었더니, 그 친구가 기뻐하며 “사람은 다 하늘이 하나이지만 나만은 하늘이 둘이 있다.” 하였다. 소유문은 “오늘 저녁 소유문이 친구와 마시는 것은 사사로운 정이고, 내일 기주 자사로 일을 조사하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고 하였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 친구의 죄를 들추어 바로잡았다.

한 번 보니 유란이 몸을 나타내고 살짝 쳐다보고 생긱이 웃으며 말했다.

“산 것을 보고 죽었다고 한 것은, 산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함이고,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한 것은, 사람으로서 귀신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속인 사람이 나쁘니까,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쁘니까?

너무 지나치게 속인 사람은 혹 있다고 할지라도, 속임을 당한 사람으로서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사졸이 되어 오직 장군의 명령을 들었을 따름입니다. 일을 주장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할 것이거늘, 어찌 사졸을 베려 하시나이까?”

御史聽罷, 私亦不無, 事實爲然.

卽命解縛, 使之上堂, 一笑賜顏曰:

“汝爲妙妓, 我爲少年, 事或無怪.

而中謀者, 甚險且怪也, 而今思之, 何呈道耶?”

乃取酒設宴, 討盡故情.

어사 듣기를 마치고 보니, 사사로운 정이 또한 없을 수 없고 사실이 또한 그러하였다. 즉시 풀어 놓도록 명을 내리고, 당상으로 올라오게 하고 웃는 얼굴로 말하기를,

“너는 아름다운 기생이 되고 나는 젊은 사내가 되어 벌어진 일은 조금도 괴이함이 없구나. 그러나 이 가운데 일을 꾸민 사람이 매우 나쁘고 또 괴이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한들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술을 가져오게 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옛날의 정회를 다 털어놓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留延數日, 凡他訟理, 事其事而罪其罪.

逸路守令, 褒者褒, 而貶者貶, 歷歷昭察, 無一冤屈.

居然之間, 歲籥改而爲八九月矣. 復命龍墀, 譽聲遠聞.

是歲, 伯亦褫歸, 兩人情誼, 歡如平生.

互相進位, 俱至上相.

挾輔之德, 變理之功, 其如漢之蕭曹, 唐之房杜者, 四十餘年云爾.

어사는 수일을 묵으며 여러 송사를 다스림에 있어서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죄는 죄대로 처리하였다. 가는 고을마다, 수령을 표창할 만한 자는 표창하고 떨어뜨릴 만한 자는 떨어뜨리면서, 일을 밝게 살피니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었다.

어언간 세월이 바뀌어 팔구월이 되었다. 어사는 다시 용지⁶⁷⁾의 명령을 받으니 명성이 멀리까지 들렸다.

67) 대궐 안의 붉은 섬돌. 임금을 가리킴.

이 해에 감사도 또한 외직으로부터 벗어나 돌아오니, 두 사람의 정의는 평생토록 두터웠다. 서로 도우면서 진급하여 함께 정승이 되었다. 서로 도와 주는 덕과 서로 변통해 주는 공은 한나라 때 소조⁶⁸)와 같고, 당나라 때 방두⁶⁹)와 같기를 사십여 년이나 그러했다고 한다.

<國立圖書館本>

68) 소하(蕭何)와 조참(曹參). 두 사람 모두 유방(劉邦)을 보좌하여 한나라 황제가 되도록 한 개국 공신으로서, 나라를 세운 후에 잇달아 서로 재상이 되었음.

69) 당태종(唐太宗) 때의 명신인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로 당태종이 정관(貞觀)의 치를 이루는데 중요한 보좌역을 하였음.